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식캠퍼스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유럽 도시들을 여행하게 될 정재영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도시들을 여행하는지

또 철학 여행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혹시 여행 준비물이나 유의할 점은 없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행 전 오리엔테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연의 두 가지 테마는 철학과 도시입니다.

철학과 도시가 무슨 상관인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과 도시는 아주 오래 전부터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서양에서 철학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지식을

사실상 출범시킨 사람이 소크라테스인데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하늘에서 끌어내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땅으로 끌어내린 최초의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소크라테스를 소개한 인물은 로마의 지성 '키케로'입니다.

이 말을 의역하지 않고 좀 딱딱하게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하늘로부터 불러내서 도시에 안주시키고

심지어는 집안으로까지 끌어들여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묻고 탐구하게 권장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키케로의 관찰이 옳다면 소크라테스

이후 철학의 주 거주지는

도시가 됩니다.

물론 이때 도시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같은 폴리스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제국으로서의
로마가 아니라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
로마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철학의 임무는
인간 삶의 공적인 영역인 도시에서

그리고 사적인 영역인 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묻고,
탐사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와
키케로와 같이

철학을 폭넓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삶의 양식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 여행을 통해서
인간 삶의 형식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유럽의 도시들을
여행합니다.

시작은 런던,
끝은 로마입니다.

그 사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에딘버러, 산업혁명 도시들,

파리, 암스테르담,
라인 강변의 도시들

제네바, 쾰히스베르크, 베를린,
바젤, 피렌체 등을 방문합니다.

왜 이 길을 걷는가? 먼저 몇 개의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10세기 캔터베리 대주교가
로마 교황청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이름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비아 프란치제나(Via Francigena)'

'프랑스에서 시작한 길이다.'
라는 뜻입니다.

영국 도버 해협을 건너서 프랑스에서
길을 떠난다는 뜻이겠지요.

중세 시대 서유럽 순례자들이
이 길을 따라 로마로 갔습니다.

요즘에는 종교와 무관하게
유럽의 길 중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여행하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길을
두 발로 걸어서

또 자전거로 떠나는 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지도는 18세기 말
영국 소설가 윌리엄 벅퍼드가

로마로 떠난 여정입니다.

런던 시장의 아들로
작곡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화가 알렉산더 카즌즈에게 미술을
배우기도 한 이 사람은

18살에 로마로 갔습니다.

당시 영국 귀족들에게 인기 높았던
그랜드 투어였습니다.

벅퍼드는 자신의 여행 경험을
몇 권 썼는데

<꿈, 산책하는 생각과 사건들>
이라는 책이 유명하죠.

다음 지도입니다.
벅퍼드보다 2세기 정도 앞선

프랑스 몽테뉴가 로마로
떠난 여정입니다.

그는 파리에서 <수상록>을
출간한 후

다른 세 명의 귀족과 함께
이 길을 따라 갔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떠난 벅퍼드와
파리에서 떠난 몽테뉴는

출발점은 다르지만
라인 강변의 바젤에서부터는

여행 경로가 일치하는군요.

다음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는 독일에서 여행을 시작한

18세기 인물로 괴테가 우편 마차를
타고 떠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출발점은 다르지만
역시 알프스 동쪽

티롤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 가는 길은 비슷합니다.

다만 로마에서 더 내려가
그리스인들이 개척한

이탈리아 남부 도시 나폴리와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

시칠리아까지 여행을 확장한 것이
다들 뿐입니다.

이렇게 중세 끝자락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서유럽 사람들은 로마로 가는
여행을 즐겼습니다.

아주 긴 장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은
그랜드 투어 또는

그랑 투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18세기까지 귀족 청년들이
마차를 타고 떠난 이 길은

키케로이라고 불리는 가정 교사가
동행했습니다.

고대 철학 세계에 정통했던
로마의 지성 키케로처럼

고대 세계에 정통한
학식 있는 인물이

귀족 청년들에게 산 교육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19세기가 되면 귀족 청년에게
상류 계급 숙녀들에게도

이 여행이 확산되었고
20C가 되면

유럽의 보통 사람들에게도
이 여행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지난 세기 후반쯤 되면
전 세계에서

유럽 여행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길은 마차를 타고
떠나는 길이 아닙니다.

기차와 자동차,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여행길이 되었죠.

이 길이 근대 초기부터 지금까지
유럽 여행의 1번지가 된 것은

유럽 문명이 이 길을 따라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문명은 런던에서 로마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그 역방향으로 전개되었지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로 보면
런던에서 로마로 가는 것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 여행이 됩니다.

이 시간 여행에서 우리는 근대 세계의
형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도시 철학 여행의
큰 주제를

'근대의 빛을 찾아서'로
잡아 보았습니다.

이 경로를 따라가면 근대의 꿈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대의 형성은 서로 밀접한
몇 가지 삶의 양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삶에서 근대 세계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오늘날 주권 재민이라든가
민주주의라는 말은

상투어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인류의 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갖춰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니다.

그것은 근대에 일어난

대사건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정치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제단에 피도
상당히 뿌렸습니다.

경제적인 삶에서 근대는 넓게는
시장 경제

좁게는 자본주의를
그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 우리가 입는 옷
거의 모두 시장에서 구입한 것이죠.

그중에서 적지 않은 상품은
해외에서 온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 질서가
형성된 것

역시 근대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일상적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산업화와 도시화

역시 근대에서 발생한 산업혁명
이후 일입니다.

학문적 질서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몇몇 오래된 기초 학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문은

근대 이후에 새로 생겨난
학문들이죠.

이러한 새로운 질서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먼 유럽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의 조건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난 세기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양측으로 압축된
근대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죠.

유럽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새로운 세계의 꿈을 설계하는 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는
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여행이 그렇지만
여행의 끝은

우리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곳으로
되 돌아옵니다.

그래서 좋은 여행은 그들이 그때
그곳에서 펼친 삶의 모습들을

편견 없이 살펴보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삶의 모습을 되 돌아보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성찰적이고
재귀적인 철학적 사유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럽의
매력 있는 도시들을

철학의 눈으로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 여행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철학의 길은 매끈하게 이어지는
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울퉁불퉁하고요,
또 자주 끊깁니다.

때로는 통로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도 그렇죠. 아무리 짜임새 있게
계획을 짜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철학이라는 말을 만든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통로가 막힌 상태를

'아포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말을 빌려서

철학의 속성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철학은 아포리아의 놀라움에서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철학이 요청되는 순간은

잘 닦여진 길을 걸을 때가 아니라
그 반대로 길이 가로막혀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할 때입니다.

위기가 없는 시대에 철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단명료한 매뉴얼 하나면
충분합니다.

철학이라는 미네르바가
날개를 펼친 순간은

거의 예외 없이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번 20회 도시 철학 여행에서
등장하는 장면은

위기와 직면하면서
시작합니다.

한 사회의 위기일 수도 있고요.
한 시대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개인에게 닥쳐온
위기일 수도 있고

또 한 문명이 직면한 거대한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위기는 한편으로는 인간 삶의
조건을 위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삶의
조건을 개척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 삶의 조건에 대한 진단과
보다 좋은 새로운 삶에 대한 설계

각 장마다 함께 읽어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철학 탐사는 기념품
판매점에 잘 진열되어 있는

아이템을 쇼핑하거나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도시 철학 여행을
쇼핑하듯

관광지 관람하듯

할 수 없습니다.

철학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머릿속으로 암기하듯

집어넣으라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철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 행위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가 15차에 만나게 될

독일 철학자 칸트의 유명한 격언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쾨니히스베르크 대학 철학 교수였던 그는

철학은 가르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칸트는 철학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철학을 직업으로 택한 사람입니다.

이상하죠? 철학을 가르칠 수 없다면 어떻게 철학 교수를 합니까?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은 가르칠 수 없지만 철학함은 가르칠 수 있다”

독일어로 얘기하면

디 필러소피(die Philisophie)는 가르칠 수 없지만

필러소피랜(philisophieren) 동사로서의 철학함은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명사로서의 철학과

동사로서의 철학으로 좀 바꿔서 말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철학의 본질은 동사로서의 철학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것은 철학자의 어원이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리스어 표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라는 뜻을 가진
소피스테스는 오늘날 역설적으로

진실을 거짓으로 둔갑시키고
거짓을 진실로 바꾸는

궤변론자로 부르고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를 철학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서양 철학적 전통에서
흥미로운 점은

철학을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천부경처럼 취급하지 않고

함께 길을 걸으면서 동행하는 친구처럼
철학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의 사랑을 뜻한 철학에서

사랑을 뜻하는 필로(philo)는
친구와 동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인간을 형제처럼 존중하는 우정,
필리아(philia)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동행할 수 있는 친구로서

철학을 보는 것을 뜻합니다.

동사로서의 철학, 친구로서의 철학은
이번 우리 도시 철학 여행에

친구가 동행한다는 점을
뜻합니다.

우리는 20회의 도시 철학 여행의
친구이자 안내자로

당대 철학자들을
소환합니다.

예를 들어서 런던이
근대 도시로서

첫 출발을 시작하는 여정에서는
베이컨을 부르고요.

암스테르담에서는
스피노자와 함께 하고

외니히스베르크에서는 칸트와 함께
도시를 산책하는 식입니다.

사실 이러한 철학에 대한
접근법은 보통

인물 중심 접근법

피겨 베이스드 어프로치
(figure based approach)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 철학에서
유념해야 할 세 번째 점은

우리 도시 철학 여행이
인물 중심 여행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철학에 대한 접근은 4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택한
인물 중심 접근법

둘째는 개념 중심 접근법

셋째는 테마 베이스드 어프로치
(theme based approach)라고 그러죠.

넷째는 역사적 접근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풀이로서의 접근법 등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이 4가지 접근 방법은

서로 칸막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얹히고설켜 있죠.

그래서 네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연자가 가장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모든 여행이 그렇듯이

도시 철학 여행을 가볍고 산뜻하게
떠나자는 말씀입니다.

여행 준비물은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마음만 활짝 열면 됩니다.

철학 여행처럼 지적 모험이
수반되는 여행에서는

이러한 열린 자세가

더 필요합니다.

때로 낯선 도시 풍경에
당혹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 낯선 인물과 생소한 개념에
움츠러들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도시들이
풍경이 다양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잠시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도시 풍경 속에서
생각의 거장들이 성찰한 것은

사실 하나의 물음으로
요약됩니다.

그것은 무엇이
좋은 삶이고

무엇이 좋은 인간사의 모습인가
하는 점입니다.

묻고 대화하고 성찰하는 즐거움
그것이 이번 도시 철학 여행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행의 출발지
런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